

UAE 경제 관련 최신 동향 보고

두바이사무소

2014. 8. 12.

1 종합

- (성장 전망) IMF는 UAE의 금년도 경제성장을 비석유부문의 호조에 따라 '13년 5.2%에 이어 4.7%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
 - 당초 3.7%('13.7월), 4.5%('14.5월)보다 높아진 것은 관광, 호텔, 부동산 경기 상승 등에 따른 비석유부문의 높은 성장세(5.5%)에 기인

	'10	'11	'12	'13 ^p	'14 ^p	'15 ^p
실질성장률(%)	1.6	4.9	4.7	5.2	4.7	4.5
-석유부문	3.8	6.6	7.6	4.8	3.0	2.3
-비석유부문	0.7	4.1	3.3	5.4	5.5	5.5

* IMF, 2014 Article IV Consultation('14.7.3)

- (직접투자) UAE가 걸프협력회의국가(GCC : Gulf Cooperation Council) 중 '13년 해외 직접투자자금(FDI)을 가장 많이 유치한 국가로 나타남
 - 전통적으로 GCC국가중 FDI를 가장 많이 유치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는 5년 연속 FDI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, UAE는 4년 연속 FDI가 상승하여 대조적
 - UAE FDI는 '13년 115억불을 기록하여, '12년 96억불 보다 약 20% 증가하였고, '14년에도 전년대비 25% 상승한 144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보도(Khleej Times, 2014. 8.12)
 - UAE FDI상승은 2020년 EXPO유치에 따른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, 제조업·서비스업 부양 등에 기인
 - 이러한 UAE의 FDI성장세는 '13년 GCC국가 전체 FDI가 '12년대비 14.6% 하락한 것과 대비되는 고무적인 현상임

2 산업 동향

□ UAE 정부, 2018년 이전에 연방채권 발행에 나설 전망

- UAE 정부가 자국내 은행들이 글로벌 유동성 요건 충족을 돕기 위해 2018년 이전에 첫 번째의 연방채권 발행에 나설 예정
 - National Bank of Abu Dhabi, Emirates NBD 등과 같은 UAE 은행들이 바젤 III 글로벌 은행 표준에 따른 유동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디르함 표시 정부채권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림
- '14년 UAE 연방정부의 지출예산 규모는 460억디르함(125억불)이며, 이는 UAE 정부(지방정부 포함) 전체 세출예산의 14% 수준임

□ UAE, 인도와 원유 공동비축 추진 (7.9)

- 세계 4위 원유소비국인 인도 정부와 아부다비석유공사(ADNOC)는 인도 원유 비축시설의 일부를 ADNOC에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
 - 인도는 원유수요의 80%를 수입하고 있는 바, 에너지 공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 중인 비상 비축시설중 약 2백만톤 분량의 시설을 ADNOC에 배당할 예정
- 한편, ADNOC은 지난해 한국과도 600만배럴 원유 공동비축 계약을 체결한 바, 한국은 유사시 비축유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, ADNOC은 동아시아 지역에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

3 건설 · 플랜트 동향

□ 두바이, 초대형 프로젝트 '몰 오브 월드' 계획 발표

- 두바이 지도자 알 막툼은 세계 최대의 몰로 기록될 'Mall of the World'라는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
- 연간 1억8천만명의 관광객 유지를 목표로 두바이 홀딩스가 개발을 주도하는 동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개방이 가능한 돔 지붕 구조로 설계

□ 아부다비,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 지속

- 아부다비는 향후 5년간 도시 프로젝트에 자금조성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약 1,000억 달러 이상을 배정함
- '17년 완공 예정인 328Km 규모의 알 마프락-알 그와이파트 간 도로 확장 프로젝트, 2,177Km 규모의 GCC 철도 연결망 공사, 아부다비 버스 및 택시 등의 대중 교통망 구축 프로젝트 등이 진행 중

□ 두바이 공항, 금년 상반기 6.2% 이용승객 증가

- 상반기 두바이 공항이 3개월간의 활주로 보수공사로 폐쇄되었음에도 공항 승객이용 실적이 3,467만명을 기록(전년 동기대비 6.2% 증가)
- 런던 히드로 공항의 승객 이용실적 3,506만명 보다 뒤쳐졌지만 여전히 허브공항으로 상당한 승객 이용실적을 기록
- '13년도에는 두바이 공항의 승객 이용실적이 히드로 공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는데, 금년 5개월 간에는 히드로 공항실적을 능가

□ 두바이, 금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2배 증가

- 두바이 토지부(DLD)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금년 상반기 중 두바이 부동산 거래 금액은 1,130억 디람(약 310억 달러)에 달하여 전년 동기 대비 46.9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□ UAE,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

- 국제 조사기관인 BMI(Business Monitoring International)는 지난 5월 UAE에서 시공중인 프로젝트가 약 2,120억 달러라고 발표하면서, 대형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향후 수요가 공급을 소화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
 - 동 기관은 디벨로퍼와 관료들은 두바이에서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요와 추가 대형 프로젝트 공급간 적정성 검토를 새로운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기
- 한편, UAE 정부는 신규 프로젝트의 분량이 수요 공급의 균형에 맞 추어 면밀히 모니터링되고 있다고 밝히고, 두바이 도시계획 2020이 지난 3월 세계 엑스포 2020 유치를 계기로 재검토되었으며,
 - 현재 계획으로는 인구가 280만에서 320만으로 40만명 증가하고 관광객은 70% 정도가 해외에서 유입되어 2,500만명에 도달할 것 이라고 예측
 - 아부다비의 인구는 '20년까지 '07년 93만명의 두배가 넘는 200만에 달하고 관광객도 '07년의 180만명 수준에서 49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

□ 두바이 세입자, 임대료가 저렴한 아즈만에 눈길

- 최근 임대료 상승 속도가 가팔랐던 Dubai 세입자들의 유입으로 임대료가 동반 상승한 Sharjah 지역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Ajman에 세입자 관심으로 아즈만 임대비율 또한 지난 3개월간 7% 상승
 - * 아즈만의 2 Room 아파트의 연간 임대료는 약 3~4.5만 디람
 - 샤르자의 임대료는 지난 몇 개월간 더욱 올라 2 Room 아파트 임대 료로 많게는 연 8만 디람(한화 약 2,200만원)에 달함
 - 이에 따라, 샤르자 대신 아즈만이 새로운 임대 지역으로 부상
 - * 침실 두 개인 아파트 기준 연간 임대료는 아부다비 15~16만 디람, 두바이 17~18만 디람, 푸자이라(Fujairah) 약 3~5만 디람, 라스 알카이마(Ras Al Khaimah) 5~7.5만 디람 수준임